배려에서 우정이 피어난다

내 주장만 하지 않고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겠어요

I will try to be a good listener.

독일의 동화작가인 미하엘 엔데((Michael Ende, 1929~1995년)는 판타지 동화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모』는 같은 이름의 여자 주인공이 시간 도둑인 회색 사나이들에게서 시간을 되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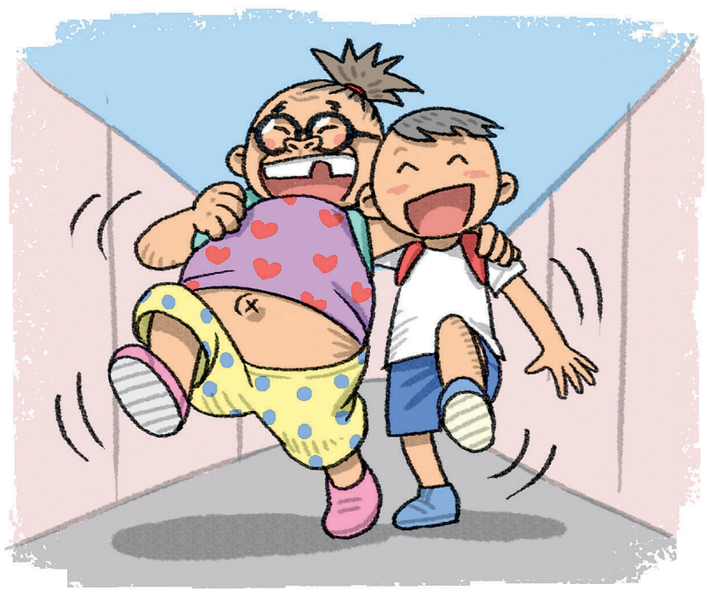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말라깽이 모모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모의 능력은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지칠 때면 모모에게 달려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이에 사람들은 기쁨을 얻었고, 믿음을 찾았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말하는 동안 귀만 열어두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며, 나아가 상대방의 기분까지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의 말을 잘 듣는 방법입니다.

* 여러분의 주변에는 모모처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생김새나 차림새로 친구를 무시하거나 따돌리지 않겠어요

I will not bully or ignore other kids because of the way they are dressed or the way they look.

깍두기는 무를 모나게 썰어서 만든 김치입니다. 왕실에서는 송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때도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이편에도 들어가고 저편에도 들어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편을 갈라야 하는데 홀수여서 짝이 안 맞을 때, 나이가 어리거나 놀이에 서툴거나 놀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을 깍두기로 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따돌림 당하는 사람 없이 모두 사이좋게 놀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놀이를 못하는 사람에게 '너, 빠져!' 라고 말하기 일쑤입니다. 가장 잘 하는 사람에게도 '너, 빠져!' 소리를 합니다. 서툰 사람이 우리 편에 있거나, 잘하는 사람이 상대편에 있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 일단은 따돌리고 보는 것입니다. 놀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에서 우리는 생김이나 차림새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따돌리고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영국 출신의 가수 중에 '수잔 보일' 과 '폴 포츠' 가 있습니다. 둘 다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으며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왕따였다는 것입니다. 곱지 않은 외모와 수줍은 성격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지만 재능을 발휘해 늦은 나이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남모르는 재주와 재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재능을 몰라보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일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왕따의 문제점과 이유에 대해 말해 보아요.
* 왕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나 어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내가 먼저 화해하겠어요

If I fight with my friends, I will be the first to apologize.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년)은 후기인상파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특히 사과 정물을 많이 그려서 '사과의 화가' 라고 부릅니다.

세잔은 중학교 때에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인 에밀 졸라(Emile Zola, 1840~1903년)를 만나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존중하고 도움을 주며 성장했고,어른이 되어서도 우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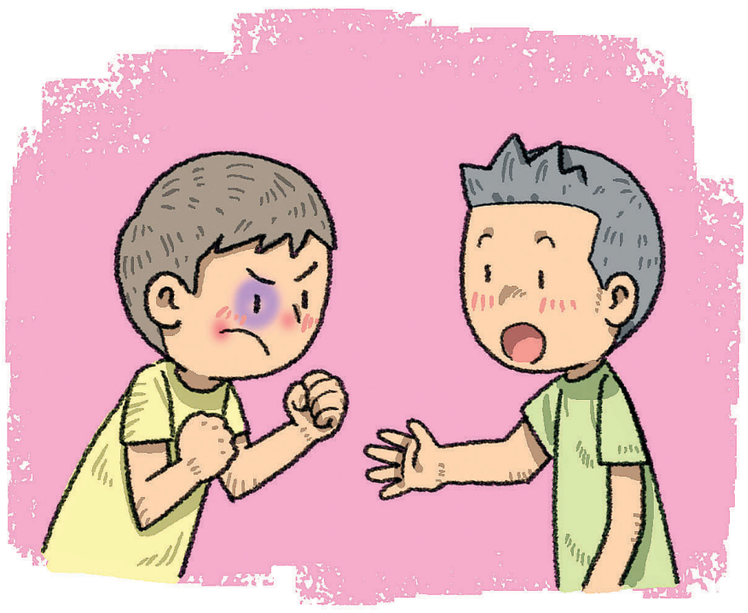
그런데 1886년, 한 권의 소설때문에 둘의 우정에 금이 갔습니다. 졸라가 실패한 천재화가를 주인공으로한 소설 『걸작』을 발표했는데, 세잔은 졸라가 자기를 빗대어 소설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잔은 친구에게 조롱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작품에 간섭하던 졸라를 떠올랐습니다. 세잔은 졸라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6년 뒤, 졸라는 드레퓌스 사건(29.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어요 참조)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년 뒤, 고향 마을에서 졸라의 흉상 제막식이 열리던 날, 지켜보던 세잔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잔과 졸라의 아름다운 30년 우정은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둘 사이에는 졸라가 소설을 발표하기 전부터 틈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세잔과 졸라 둘 중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아름다운 우정이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친구와 다툰 뒤에 쉽게 화해하지 못합니다. 잘못이 나에게 있으면 쑥스러워서 먼저 말 못하고, 잘못이 없으면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입니다. 친구에게는 잘못을 따지기 전에 손을 먼저 내밀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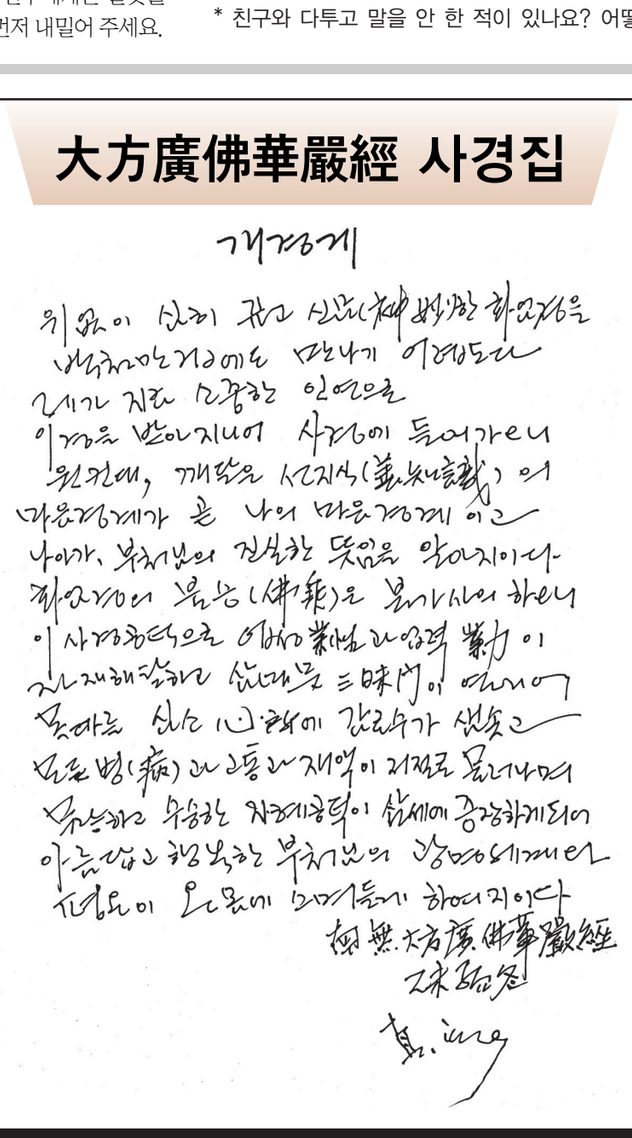
* 세잔의 입장이 되어서 졸라에게 먼저 말을 건네 보세요.
* 졸라의 입장이 되어서 세잔에게 먼저 말을 건네 보세요.
* 친구와 다투고 말을 안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화해했나요?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진귀 화두집 〈평온〉 출판

大方廣佛華嚴經 사경집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